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축사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현철 원장님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신 양 기관의 연구진과, 세션의 깊이를 더해 주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박성철 고려대 교수님, 윤참나 서울대 교수님, 최자원 한양대 교수님,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지난해 3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 협력 강화를 목표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그 연장선에서 양 기관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거시적 시각을 갖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미시적 통찰을 축적해온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초고령사회라는 복합적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입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대략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언급할 만큼, 우리 변화의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빠르게 확대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오삼일 외 2025), 주택연금 활성화(황인도 외 2025), 돌봄인력 확충(채민석 외 2024),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방안(김태경 외 2025) 등 ‘구조개혁 연구 시리즈’의 한 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러한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산업적 관점’에서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돌봄·의료·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공공 재정만으로는 뒷받침에 한계가 있어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과 소비 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여행·여가·문화 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웰에이징’(Well-aging)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요양, 자산 정리, 장례 계획 등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는 더 이상 복지의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도 인식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규제의 정비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구조개혁과 마찬가지로, 법·제도적 제약과 이해관계가 얹혀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의 구조개혁 보고서는 그간 추상적인 문제 제기에 머무르기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참고·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구조개혁 보고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두 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제기된 세 가지 사례의 핵심 취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 불균형 문제입니다. 현재 요양 수가는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가 큰데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시설 공급이 제약되고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

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는 가족 곁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요양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화장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화장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시설 확충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3일장이 5일장으로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례 과정의 부담과 비효율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에서는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시설을 분산 설치함으로써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님비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대형 병원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지역사회가 필수적인 장례 시설도 함께 수용함으로써, 필수 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이오 데이터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민이 병원에서 태어나 치료를 받고, 생의 마지막 또한 병원에서 맞이하는 의료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의료 기록이 전산화되어 축적되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식별 체계를 바탕으로 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도 가지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큰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개인과 의료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한해 국가가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장치 아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바이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다시 의료 서비스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논의된 세 가지 제안은 모두 현행 제도 아래에서 곧바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나름의 제약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논의가 “안 된다”는 결론에 머문다면, 변화 속에 담긴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성과에만 안주하기보다는,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라는 도전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김태경·이인로·정종우·유인경·한은정·박영우 (2025),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희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38호, 한국은행.

오삼일·채민석·한진수·장수정·김대일 (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 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한국은행.

채민석·이수민·이하민 (2024),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4-6호, 한국은행.

황인도·김우석·한재근·김덕규 (2025),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13호, 한국은행.